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마음의 과학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심리학의 근간을 세운 한국심리학회가 어느덧 창립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엄혹했던 시대에 학문의 씨앗을 뿌린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 학회는 한국에서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대표적 지성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마음의 과학’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Johan Huizinga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놀이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행위를 넘어,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문화를 창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동력입니다. 기술 발전이 추동하는 급격한 변화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생존과 효율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 삶을 치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유희적 본성에 있습니다. ‘유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핵심 기제들을 관통하는 현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으로서 심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회가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시점에 ‘호모 루덴스’에 관한 학술논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숙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심리학은 적응과 마음의 치유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과 번영을 중심으로 ‘즐겁게 창조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생성적 과학으로 그 시각을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AI가 노동과 계산, 분석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유희’에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유희적 주체성’이야말로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 마음의 마지막 보루이자, AI시대 인간 정체성의 핵심 축입니다. 셋째, 한국 사회는 극심한 경쟁과 사회집단간 혐오, 양립불가능한 가치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유희’는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연성을 상징하며, 인간의 유희성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우리 사회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심리학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중독과 파괴적 생활양식으로 변질되는 심리 및 행동기제, 그리고 의미와 가치가 결여된 ‘쾌락의 쳇바퀴’가 지니는 위험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창립 80주년에 마련된 오늘 이 자리는 인간의 마음을 차가운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을 넘어 심리학이 즐겁고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향한 따뜻한 과학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심포지움은 단순히 ‘놀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과학과 유희를 연결지어 놀이를 심리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래 심리학을 이끌어갈 심리학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지적 유희와 감동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마음의 과학

Psychology for Homo Ludens

2026년 4월 17일(금) 13:00 ~ 17: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접수기간 2026년 3월 11일(수) 10:00 ~ 4월 5일(일) 23:59

접수방법 (사)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선착순 300명)

인정시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범죄심리사 학회참석시간 3시간 인정
한국중독심리학회 중독심리 교육 3시간 인정

참가인원 300명 (선착순, 공지인원 충족 시 조기마감)

참가비 회원 및 학부생 무료 비회원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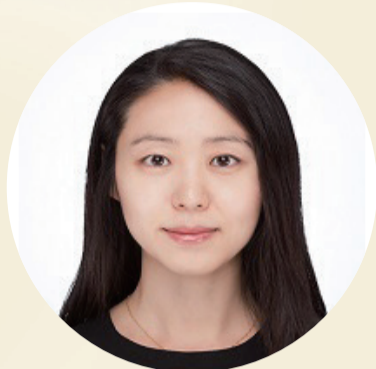
공지사항
바로가기 QR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마음의 과학



김나미 |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결핍과 과잉 사이:
중독의 심연에서 발견한
긍정심리학적 회복 메커니즘



김주은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유희의 그림자, 고립된 마음:
거주형 치료시설에서의 '함께'라는 과학



노현중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디지털 시대의 호모 루덴스?:
변화된 놀이문화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선택적 친화력



유현재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놀아야 사는 소비자의 심리:
두존쿠 및 TV 홈쇼핑 사례를 중심으로



최인수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놓: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vs. 놀고 있네?

세부일정

사회자 | 한영석 | 호서대학교 심리학과

시간	강연일정	강연자(소속)
12:00 ~ 13:00	접수 및 등록	
13:00 ~ 13:15	환영사 및 축사	
13:15 ~ 14:00 (45분)	결핍과 과잉 사이: 중독의 심연에서 발견한 긍정심리학적 회복 메커니즘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14:00 ~ 14:45 (45분)	유희의 그림자, 고립된 마음: 거주형 치료시설에서의 '함께'라는 과학	김주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14:45 ~ 15:30 (45분)	디지털 시대의 호모 루덴스?: 변화된 놀이문화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선택적 친화력	노현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5:30 ~ 15:45 (15분)	휴식	
15:45 ~ 16:30 (45분)	놀아야 사는 소비자의 심리: 두존쿠 및 TV 홈쇼핑 사례를 중심으로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16:30 ~ 17:15 (45분)	놓: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vs. 놀고 있네?	최인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17:15 ~ 17:30 (15분)	폐회 및 사진촬영	

유희하는 인간을 위한 마음의 과학



기타안내

신청방법

(사)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회행사 ◦ 교육/행사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접수
 ◦ 2026 특별심포지엄
 ※ 참가 신청 시 학부생은 “재학증명서” 혹은 “학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 2026. 03. 11(수) ~ 2026. 04. 08(수) 15:00 까지
방법 (사)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회비/행사) ◦ 환불내역 ◦ 회비 환불신청
 ◦ ‘교육행사참석’ 선택 ◦ 2026 특별심포지엄 체크 후 환불사유 작성하여 신청

참석확인증 발급

방법 (사)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확인증/자격증
 ◦ 학술대회/특별심포지엄/교육행사 참석 확인증 ◦ 하단 “교육/행사 참석정보”에서 확인
 ※ 참석확인증 발급은 행사 종료 후 약 3-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문의

✉ kpa@kpsy.or.kr

주차 할인권 판매 안내

현장 로비접수대에서 주차권(4,000원/8시간)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 카드결제만 가능, 선착순 마감

- 본 심포지엄은 친환경 행사 운영의 일환으로 종이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 개인 디바이스 지참 권장
- 행사 전반에 대한 무단 촬영 및 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저작권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홀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5분
 -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07번 마을버스 이용
 -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또는 종각역 2,3번 출구에서 종로2번 마을버스 환승
- 마을버스**
- 종로 02번, 종로 07번, 종로 08번

- 버스**
- 간선버스(파랑) :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710
 - 지선버스(초록) : 2112
 - 공항버스 : 6011

자차 이용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성균관로 25-2 600주년 기념관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